

『나의 안토니아』(My Antonia)에 내포된 생태주의적 비전

김 향 속
(계명대학교)

Kim, Hyang-Sook. Willa Cather's Ecological Vision in *My Antonia*.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68 (2017): 113-13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Willa Cather's major novel *My Antonia* through the perspective of ecology. Cather didn't explore a human-centered development of nature, but a nature-centered one. She depicted a Antonia Shimerdas as a truly ecological heroine. And descriptions of nature, such as pastoral landscapes, change of season and agricultural scenery, are mainly delivered from the eyes of Jim Burden, the sole narrator of the novel. In this book, nature and landscapes are not merely a background, but they are filled with the significance of humans. Cather tried to show the vision of the future that harmonizes with nature through an ecological relationship with nature and others. She attempted to find a solution to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ecological crisis of modern society and took nature as an element of an eco-vision. (Keimyung University)

Key words: coexistence, ecological crisis, ecological vision, nature-centered, Willa Cather

I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생태문제는 단순히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환경오염을 넘어 우리 일상의 삶의 방식과 의식 및 무의식의 근원적인 부분까지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생태파괴의 현상부터 오존층의 파괴나 비정상적 기후 변화와 같이 전 지구적으로 직면하는 현상들을 위시하여 이산화탄소의 과다배출로 인한 공기 및 수질 오염, 물 부족, 토양 황폐, 식량 고갈 등 지구전체의 생존여부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처럼 당면하고 있는 생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

간중심주의 이기심과 편익 위주로 발달된 물질문명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편익 위주로 발달된 물질문명은 자업자득으로 인간이 뿌리고 거두어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생태문제에 직면토록 하였다. 환경위기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생태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진단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위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1970년대에 독일에서 생태문학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출발하게 된다. 생태문학은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문제를 성찰하고 비판하며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생태사회를 꿈꾸는 문학을 의미한다. 생태학적 인식을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태계 문제를 다루거나 생태의식을 일깨우는 작품을 생태문학에 포함시킨다(김해옥 15). 또 생태의식을 일깨우고 생태학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학작품이라면 문학생태학의 테두리에 넣고 있다(김옥동 32).

하나의 장르로서 생태문학이 대두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1970년대에 앞서 일찍이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1862)는 세계생태문학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월든』(Walden 1854)에서 자연의 생태 가운데서 더불어 사는 공존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가치관을 정립하였다. 소로우는 『월든』의 「콩밭」에서 자연은 인간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준다.

우리가 흔히 잊기 쉬운 것은, 태양은 인간의 경작지와 대초원과 삼림지대를 차별 없이 똑같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태양의 광선을 똑같이 반사하거나 흡수한다. 인간의 경작지는 태양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내려다보는 멋진 풍경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태양의 눈에 이 지구는 두루두루 잘 가꾸어진 하나의 정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양의 빛과 열의 혜택을 이에 상응하는 믿음과 아량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가 이 종자 콩들을 소중히 여겨 가을에 수확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내가 그토록

오래 보살펴온 이 넓은 밭은 나를 진짜 경작자로 보지 않고 밭에 물을 주고 밭을 푸르게 만드는, 보다 친절한 자연의 어떤 힘을 더 따르는 것이다. 이 콩의 결실을 내가 다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 콩들의 일부는 우드척을 위해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소로우 228)

소로우는 인간만이 이 우주의 주인이나 소유주는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은 이 우주에 세 들어 사는 소중한 식구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 우주라는 공동체가 평화로우려면 구성원들이 한결 같이 서로를 배려하며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콩밭인 자연은 인간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준다(김옥동 276). 모든 유기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은 지구라는 거대한 집에 다른 생물, 무생물과 함께 세 들어 사는 존재(김해옥 16)일 뿐이라는 것이다.

소로울을 위시하여 미국의 생태문학 작가로는 쿠퍼(James Fenimore Cooper), 에머슨(Ralp Waldo Emerson), 뮤어(John Muir), 레오폴드(Aldo Leopold) 등이 거론된다. 이들 남성작가들과는 달리 투박한 미개척지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대초원을 섬세한 감성으로 잔잔하게 그려낸 생태소설가 윌라 캐더(Willa Sibert Cather, 1873-1947)가 있다. 캐더는 『오, 개척자여!』(O Pioneers!, 1913), 『나의 안토니아』(My Antonia, 1918), 『길 잃은 여인』(A Lost Lady, 1923), 『교수의 집』(The Professor's House, 1925), 『대주교에게 죽음은 온다』(Death Comes for the Archbishop, 1927), 『바위 위의 그림자』(Shadows on the Rock, 1931) 등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초기에 해당되는 『오, 개척자여!』와 『나의 안토니아』는 작가 스스로 '흙의 소설'(Novel of Soil)(Cather, On Writing 93)이라 했듯이 네브래스카의 대초원을 배경으로 미개척지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나의 안토니아』(1918)는 웅대한 자연묘사와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대자연 속에서 강인한 여성·아내·어머니로 삶

을 살아가는 안토니아(Antonia Shimerda)의 긍정적인 모습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다. 네브라스카의 강인한 원시적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 풍경에 대한 탁월한 묘사는 작품의 주인공이 사람만이 아닌 자연도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듯하다. 캐더는 자연을 배경으로 환경 친화적인 삶과 서부 개척지에 몰려온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겪는 개척시대 초기의 농경생활을 그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의 안토니아』에서 시종일관 묘사되고 있는 자연 속에 내포된 생태주의 적 비전을 탐색해 볼 것이다. 생태주의 적 시각에서 등장인물들이 자연을 근간으로 자아실현을 달성하고 자연과의 공존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에 초점을 두어 캐더가 『나의 안토니아』를 통해 그녀의 생태주의 적 비전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한다.

II

평생을 독신 작가로서 치열한 삶을 살며 네브래스카 소설을 탄생시킨 미국작가 윌라 캐더(1873-1947)의 묘비 문에는 “당신의 작품은 이 나라와 온 국민에게 주는 불후의 선물이며 그 안에 담겨 있는 광대한 정신의 진실과 박애는 길이 보전될 것입니다”(Cather 358)라고 새길만한 평가를 받고 있다. “광대한 정신의 진실과 박애”는 그녀가 성장한 네브라스카의 대 자연을 토대로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캐더가 이처럼 자연과 생태에 대한 관심을 남달리 일찍이 주목하게 된 근거에 대해 대표적인 캐더 연구자 로소스키(Susan J Rosowski)는 “윌라 캐더의 장소 생태학”(Willa Cather’s Ecology of Place)에서 캐더가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만나 교류하며 존경했던 식물학자 베시(Charles Bessy)와 생태학자 클레멘츠(Frederic Clements)에게서 자연과 생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Love 6). 네브라스카 즉 서부(The West)에 대한 캐더의 글쓰기 욕구를

추적하던 로소스키는 캐더의 자연모사는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에서 황야에 정복되는 자연으로 진행되며 약탈당하기를 기다리는 처녀지에 대한 글 쓰기라기보다 활동을 멈추고 있다가 잠을 깨어 독립하여 포효하는” 여성 자연(female nature)으로서 서부를 그려놓았다고 주장한다. 로소스키는 캐더의 글 읽기에서 “땅은 결코 정복당하지 않으며 개척될 수 없고 생식력을 보유하고 있어 마치 개척될 수 없는 여성과 비슷하다”고 대지와 여성의 관계를 연계시키며 『오, 개척자여!』와 『나의 안토니아』에서 캐더는 대평원에서 “짐을 싸서 아담을 내 보내어 여성을 위한 낙원을 찾고 자연과 더불어 성 심리의 정체성(psychosexual identification)을 여성들에게 회복하여 자연의 미 개척성(wildness)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Love 31)고 주장한다. 그는 캐더가 자연을 여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척되지 않는 황야 자연을 남성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여성에 비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글롯펠티(Cheryll Glotfelty)는 「캐더랜드에로의 생태비평 가이드여행」(“A Guide Tour of Ecocriticism, with Excursions to Catherland”)이라는 글에서 여러 학자들이 캐더의 생태비평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프라이어(Judith Fryer)는 생태학적 관점을 남서부의 사막풍경이 캐더 서사 양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며 캐더가 정신적인 관련성(spiritual connectedness)을 물질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스타인호겐(Carol Steinhagen)은 생태에 대해 캐더가 독특한 예술적 관련성을 실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러브(Glen A Love)는 『나의 안토니아』에서 얽히고 설리게 연루된 풍경과 기억을 심미적으로 간직하면서 서부에 만연 해 있는 이중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몸과 마음의 분리,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고 자연과 인간성을 분리시키는 이중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라이온(Thomas J Lyon)은 캐더가 삶의 의미를 생명공동체(biotic community)에 두고 있어서 자연을 인간노력을 위한 우수성의 기준(standard of excellence)

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Glotfelty 28-33).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캐더의 자연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관점기준에 따라 캐더의 자연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캐더의 친 자연 생태주의 적 관점에 대해 너그럽고 풍요로운 자연이면서 동시에 잔인하고 모진 자연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양면적 비평도 있어 왔으나 이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각각 개성을 갖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환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캐더 작품 속에 자연은 단순한 배경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중심인물처럼 자주 상세히 묘사되어 작품이 진전해 나가는 근간이 되고 있을 만큼 자연은 주요한 역할을 한다. 작가가 자연의 생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이와 같은 서술은 불가능할 것이다.

낭만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서술방식으로 어린 시절 추억을 독자에게 함께 공유하도록 설정된 서문에서 짐 버든(Jim Burden)이 묘사하는 자연 풍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순환하는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목도할 수 있다.

우리가 끝없이 펼쳐져있는 누런 밀밭을 휘휘 밀어제치면서, 밝은 색깔 꽃으로 뒤덮인 목초지와 더위에 늘어진 떡갈나무 숲을 뒤로 보내며 달리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먼지가 접점이 쌓인 전망차 칸에 앉아 있었다. 먼지와 열기와 뜨거운 바람은 어린 시절의 날들을 생각나게 했다. 밀과 옥수수에 파묻힌 작은 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날씨라고는 온 세상이 눈부신 하늘 아래 녹색으로 파도치고 억센 잡초와 추수를 기다리는 농작물의 색깔과 냄새로 숨이 막힐 것 같은 불타는 여름, 주위가 온통 회색 철판처럼 별거벗을 데다 눈은 거의 내리지 않고 바람만 매섭게 휘몰아치는 겨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¹

¹ 윌라 캐더. 『나의 안토니아』, 전경자 역, 열린책들, 2014, p.9. 앞으로 쪽수만 표시.

10살 소년 짐 버든은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향 버지니아를 떠나 조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네브라스카에 당도한다. 네브라스카는 아직 문명의 이기가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에 안토니아 쉬메르다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보헤미아에서 온 이민자로서 네브라스카의 겨울날씨에 대한 경험도 정보도 없이 끼니가 없어 썩은 감자 몇 개와 죽으로 겨우 연명해야 할 정도로 겨울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만약 짐 가족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첫 해 겨울을 넘기기가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불안한 이민농가는 자연이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이웃의 도움으로 겨울을 무사히 넘긴 것이다. 이윽고 겨울이 지나고 주변의 동물과 식물을 깨어나게 하는 봄의 기운에 감싸인 짐 버든은 땅에서 풍겨 나오는 계절의 변화를 주시한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생명으로 가득 찬 네브라스카의 여름은 중요하다. 미국 최고의 옥수수 농업 경작지로 옥수수를 수확하는 계절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혹독한 중서부의 겨울을 잘 견뎌야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활기 찬 봄과 생명이 약동하는 무더운 여름, 수확의 계절, 갈색으로 변해 버린 황량한 겨울이라는 스틸 넘치는 계절의 순환, 즉 자연의 사이클에 의한 날씨 변화를 짐 버든의 시각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짐 버든은 관찰에 의해 자연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연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깨달으며 성장해 간다.

나는 꼼짝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마치 호박처럼 나는 태양 아래 누워서 햇볕을 즐기는 존재였을 뿐이며 그 이상의 것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지극히 나는 행복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가 죽어서 태양이나 공기, 선이나 지식 같은 완전한 존재의 일부가 되었을 때의 기분이 그러하리라. 어쨌거나 내가 느낀 것은 행복이었다. 완전하고도 위대한 것 속으로 용해되었을 때의 기분이었다. 그러한 행복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마치 수면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28-9)

자연과 하나 되어 행복을 느끼는 이와 같은 태도는 친자연적 생태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인식하고 사물인 흙과 사람을 관련시키는 생태주의적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사람과 자연은 더불어 살며 공존적 가치를 공유하는 생태 공동체이지 결코 경쟁을 유도하는 적대적인 대립관계가 아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었고 인간은 죽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열 살 짐 버든이 자연과의 융합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죽어 생명의 근원인 흙으로 돌아갔을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인간의 본능이라 볼 수 있다. 자연과 융해되는 짐의 경험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과 인간의 완전한 합일을 뜻한다.

짐 버든에게 자연은 언제나 그가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며 추억의 장소이다. 그가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만나 깊은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던 클레릭교수의 학식을 존경했지만 자신이 그와 같은 학자가 결코 되지 못할 이유를 자신이 성장했던 그 황야와 그 황야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과의 기억 때문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인간과 무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몰두할 수가 없었다. 정신적인기쁨을 경험할 때는 즉시 그 옛날 살던 벌거벗은 땅과 그곳에 흠어져 살던 사람들에게로 되돌아가 있었다. 클레릭교수가 내 눈앞에 가져다 보여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의 마음은 나에게서 벗어나 어느덧 나의 무한히 작은 과거 속에 존재하는 인물들과 장소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태양에 비쳤던 쟁기처럼 보다 더 힘차고 단순해진 모습으로 내 마음 속에 남아있다. 새로운 매력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지니고 있던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251)

짐 버든은 실천적인 친생태주의자라기보다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그에게 황야 특히 안토니아와 함께 했던 자연은 그의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다. 풍부한 감성을 지닌 낭만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버든은 변호사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만 그의 아내, 잘 생기고 활동적이고 수준은 높지만 감수성이 없고 기질적으로 열정이 결여된 여자, 남편의 조용한 취향에 짜증을 내는, 메마른 아내와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다.

링컨을 떠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법대 입학하기 전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몇 해 만에 짐 버든은 네브라스카로 돌아온다. 미혼모가 된 안토니아의 소식을 듣고 그녀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미망인 스티븐슨(Mrs. Stevens)을 만나러 갈 때 관찰된 자연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땅의 형태는 사람의 얼굴과 다를 바 없다는 짐의 자연 존중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바람 부는 봄철과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철이 오고가면서 저 고원지대를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으며 저 대지 속으로 흘러들어간 인간의 모든 노고가 이제 결실을 맺어 기름진 밭이 길게 줄지어 뻗어 있었다. 그러한 변화는 아름답고도 조화롭게 보였다. 그것은 마치 위대한 사상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는 것과도 같았다. 나무 한 그루, 모래밭, 울퉁불퉁한 언덕, 등. 내가 알아보지 못할 것들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형상을 기억하듯 나는 그 땅의 형태를 일일이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291)

짐 버든에게 어린 시절의 자연은 성인이 된 지금도 그대로이다.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자연의 기운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산 속 수풀과 수목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는 건강이 악화된 환자들의 염증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암환자들도 산의 기운이 느껴지는 공기가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을 종종 볼 수 있다. 오늘날 황사현상도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자동차 매연 등 이산화

탄소의 배출이 자연의 정기를 혼탁하게 할 수 밖에 없으며 또 그 공기를 사람이 들며 마신다.

이와 같이 자연 자체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a thing-for-us)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것(a thing-in-itself)” (Murphy 28)임과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동등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라는 생태주의 적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의 안토니아』에서 캐더의 친 자연 생태주의 관점은 주인공 안토니아에게서 가장 부각되고 있다. 보헤미아에서 이주한 슈메르다 가족은 혈벗음 그 자체이다. 이민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슈메르다는 염창으로 자살하고 만다. 오빠 암브러시(Ambrosch)를 편애하는 어머니 밑에서 안토니아는 힘든 농사일을 억척스럽게 감내하며 하녀생활도 하고 연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혼모가 되나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 후 보헤미아 출신의 도시 남성 안톤 쿠작과 결혼하여 11명의 자녀를 두며 풍요로운 대지같이 너그럽고 따뜻한 성품을 유지한 채 나이가 들어도 생명을 불꽃을 잃지 않고 광대한 자연 속에서 곳곳이 살아가는 강인한 여성이다. 개척지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후 자연에 대한 강한 애착을 소유한 안토니아는 결국 황무지를 비옥한 토지로 일구어 내고 풍요로운 대지로 변화시켜 농장의 소유주가 된다.

안토니아의 자연에 대한 애착심과 존중은 본래 자연이 지닌 속성과 상호 조화를 만들어 내어 합일의 위치에 이르게 되는 생태주의적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어 캐더의 생태주의 비전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캐더는 안토니아를 통해 자연 토양에 대한 그녀의 의식을 분명히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안토니아의 삶의 여정이 친 자연 생태주의 적 사고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안토니아의 삶이 언제나 자연 토양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통해서 결국 그녀의 자연으로 회귀하고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매우 부지런하며 활달하여 어디서나 적응을 잘 하는 안토니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잘 드러난다.

안토니아와 그녀의 주인사이에는 근본적인 조화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강하고 자주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서 남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일이 없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동물들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거친 장난을 좋아하고 흙일을 좋아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좋아했으며 부드럽고 하얀 침대를 준비해 놓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기를 좋아했다. 거만한 사람들을 비웃었고 불행한 사람들은 지체 없이 도와주었다. 두 사람 모두 지나치게 섬세하지 않으면서도 지극히 활기차고 명랑하며 삶을 즐길 줄 알았다. (177-78)

위와 같은 안토니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밑바탕에는 흙과 농사와 자연에 대한 애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연에 대한 안토니아의 존중심은 자연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중요한 유기체임을 지각하고 있다. 반면 자연 토양과 농사를 혐오하던 “몸속에 소 냄새를 도저히 씻어 낼 수 없어 하던” 안토니아의 친구 레나 링가르드(Lena Lingard)는 시골을 떠나 도회지로 가서 양품점을 열었고 그리고 사업을 하여 돈을 벌겠다는 타이니 소더볼(Tiny Soderball)도 시골을 떠나 버린다. 그들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토양을 개간하는데 참여했을 뿐이고 토양의 사용가치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생태주의 적 상상력이 결여된 인물들이다. 또한 토양개간이라는 일 자체를 즐길 수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농사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토양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그들 각자는 사업에서 성공하지만 각자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다. 열 한명의 아이와 함께 대평원에서 평화로운 생활로 나날을 보내는 안토니아와는 대조적으로 레나에게 “가정이란 항상

어린애들이 너무 많고 화난 남자 어른과 병든 여인 주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일거리가 있는 곳”(277)이다. 안토니아의 친구들은 과도하게 자아실현에 집착해서 돌봄과 배려의 자질을 함양한 자애로운 여성성을 상실한 인물들로 안토니아와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주변 인물들과 차이를 보여주는 안토니아의 정체성은 사생아 딸 마샤(Martha)를 양육하는 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도망가 버린 애인 래리 도노반(Larry Donovan)을 원망하지 않고 출생한 아이를 “다른 여자 같으면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했겠지만 도금된 커다란 사진틀에 넣어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 “그 얼마나 안토니아다운가!”(299)라고 짐은 평가한다. 그녀는 주변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딸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며 새로운 환경에 바로 대처한다.

미혼모 안토니아의 근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찾아 온 짐에게 안토니아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난 도시에서 살면 늘 불행할거야 아마 외로워서 죽을 거야. 벗단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그루 다 아는 낯익은 땅에서 사는 게 좋아 난 여기서 살다가 죽고 싶어 켈리 신부님이 그러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을 가지고 태어난대. 그리고 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있어 난 내 어린 딸이 장차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보살펴 줄 테야, 짐, 난 내 딸을 제대로 돌봐 줄 거야” (303-4)

자연에 대한 애정과 믿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책임과 보살핌을 지닌 안토니아는 친구들과과는 달리 배려와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는 여성이다. 캐더는 이 작품에서 또한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캐더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노동하던 안토니아의 근면성에 대해 찬

사를 보냄과 동시에 노동의 가치에서 파급되는 효과를 블랙호크 사회에 거주하는 두 부류의 여성들을 통해 드러낸다. 두 부류의 여성들이란 블랙호크에서 처음부터 거주하던 도시여성이고 또 하나는 시골에서 노동으로 훈련받아 직업을 찾아 이사 온 여성이다. 물론 블랙호크의 젊은 남성들에게 후자 여성들은 훨씬 매력적으로 여겨지나 이 여성들은 그 사회에서는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황야를 일구는 일을 도우며 자란 딸들은 삶에서 빈곤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안토니아처럼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일찍 철이 들어 세상을 배우게 되었다.... 체격을 보면 거의 다른 인종 같았고 들판에서 일을 하느라 모두들 활력이 넘쳐흐렸으며 읊으로 와 어색해하고 수줍어했던 첫 단계가 지나자 몸속에 있던 그 활력이 다시 밖으로 나와 태도를 항상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거동도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블랙호크여자들하고 당연히 눈에 띄게 달라 보였다 (194-95)

토지에 대한 애착과 자연환경에 대한 수용과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 안토니아의 생태주의적 가치관은 자연을 사람과 같이 여기고 돌보는 면모에서 부각되며 결국 그녀의 애정 어린 보살핌이 일대의 황야를 비옥한 농장으로 변모시키므로 보상을 받는다. 이 같은 안토니아에 대해 밀러 (James E Miller)는 “안토니아는 불모의 대평원에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유롭고도 인자한 정신을 보존하고 있어 더욱더 괄목할 만하다”(146)고 평가한다. 이제 그녀는 저장고까지 지어 곡식을 보관할 만큼 광활한 농장에서 풍요로운 결실을 수확한 농장소유자가 된다. 황야를 개간하여 농노로 이용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여 착취하는 개발로 볼 수 없다. 이는 사람이 자연의 군림자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가다란 파랑 풀 속에서 자란 사과나무들 사이를 걸어가며 안토니아는 나무를 지나칠 적마다 멈춰서서 한 가지씩 이야기했다. “난 나무들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나무를 사랑해” 손으로 나무껍질을 비벼대면서 한 말이었다. “우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없었어. 여기 있는 나무는 하나같이 우리가 심은 것들이야. 물도 길어다 줘야했는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말이야. 안톤은 원래 도시사람이어서 툭하면 낙담했어. 날씨가 가물 때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이 나무들 때문에 걱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이것들은 나한테 자식 같았거든. 남편이 잠든 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물을 길어다 이 가엾은 것들한테 먹여주었던 게 한 두 번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잖아... 이 근처에서 우리 과수원처럼 수확을 많이 거두는 과수원은 없다고. (321-22)

도시로 가버린 친구들과는 달리 자연 속에서 노동으로 단련된 안토니아의 얼굴은 “색다른 힘”과 “타고난 건강과 열정의 빛”이 넘쳐나고 있다. 안토니아의 아이 출산을 도운 미망인 스티븐슨 부인이 “타고난 엄마더라”라고 말 하듯이 안토니아는 인내심과 신중한 자제력과 건강한 열정과 진정성을 지닌 마음씨가 바깥으로 그녀의 건강한 신체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노동으로 단련된 그녀의 육체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명감이 용솨아 오른다. 안토니아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은 인상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남겨 놓은 여인이다.

이제는 고생으로 찌든 여인이고 이미 아름다운 젊은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아직 상상의 날개에 불을 붙여주는 신비한 힘이 있었으며 평범한 것들 속에서도 의미를 보여주는 눈짓하나 혹은 몸짓 하나로 상대방을 순식간에 사로잡는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과수원에 서서 작은 능금나무에 손을 얹고 능금

을 올려다보기만 해도 그러한 그녀의 모습은 나무를 심는 일과 가꾸는 일과 마침내 수확을 거둬들이는 일에 대해 선량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가슴 속의 강렬한 힘과 모르고 아낌없이 베푸는 관대한 마음씨가 모두 그녀의 육신에서 나왔던 것이다. 안토니아의 아이들이 모두 의젓하게 곧게 자라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마치 초창기 종족들의 창시자처럼 그녀는 생명의 풍요로운 광산이었다. (333-34)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노동을 통해 연마된 체력과 돌봄과 배려로 아낌없이 베푸는 자애로운 마음상태가 생명감이 넘치는 안토니아의 신체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친 자연 생태적 환경에서 공급받는 건강한 에너지가 신체에 용해되었기 때문이다. “생명의 풍요로운 광산”에 비유되는 그녀의 힘은 자연의 정기를 받아 11명의 아이의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은 마치 대지의 여신처럼 보인다. 로소스키는 이러한 안토니아라는 캐릭터에 대해 “신세계에 이르러 안토니아가 흙집에서 마치 처음 태어난 듯이 나타나서 운명을 타고난 어머니, 부인할 여지가 없는 대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1986 79)고 언급하고 있다. 안토니아에게 자연은 지속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생명의 원천인 것이다.

20년이 지나 짐 버든과 안토니아의 해후에서 안토니아와 그녀의 집 근처 대지와 자연은 예전 짐의 기억 속에만 머무르는 장소 이상이며 자연에 깊게 뿌리 내린 안토니아에 대한 향수는 그가 그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제 안토니아는 자연에서 생계를 창출하면서 토지의 복구와 갱생을 거듭하고 보상을 받는다. 자연풍경과 생명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막강한 자연의 힘이 계절의 주기적 순환 속에서 후원자 또는 안내자로서 환경을 조성할 때 안토니아는 자연의 적대자가 아닌 후원자로서 자연과의 공존관계를 유지한다. 안토니아를 통해 자연의 일부로서 순환을 거듭하는 영원한 자연 속에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자연의 공존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캐더의 생태주의적 비전이 표출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조화와 합일을 이루는 생태주의의 본질을 추구하는 안토니아는 캐더가 추구하는 자연 친 생태주의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자연 여성이다. 안토니아는 자연의 질서가운데 토지에 대한 열정과 사람 및 자연에 대한 존중과 돌봄과 배려의 윤리를 갖추고 진정한 자아실현을 이룩한 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

III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씌어진 생태문학은 지금까지의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사람도 생태계의 일부로 여기며, 모든 유기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태계의 제반 문제를 파악할 뿐 아니라 결과를 유도한 원인을 찾는 작업도 함께 요구된다. 생태학적 인식은 산업사회의 지속적인 진보와 발달에 부정적이며 서구의 근대문명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유지한다. 특히 서구 문명에서는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배제한 채 삶의 비극적 요인을 대부분 인간의 잘못에서 찾아 왔다. 그들은 자연이 인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의 도덕성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김경현 2).

그러므로 이제, 자연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시각이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사고가 생태계의 파괴 원인임을 자각하고 생태계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무심하게 자연에 피해를 끼친다면 자신도 피해를 받게 되는 결과는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 캐더는 여성 주인공 안토니아가 자연에 부리를 유지한 채 자연과 인간 모두를 소중히 여기면서 배려와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며 건전한 노동의 대가로 황야와 농업을 성공적으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간에게 끼치는 자연의 영향을

사계절을 통해 알려주며 인간과 자연의 화해와 융합을 짐 버든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평생 어린 시절에 경험한 충만한 자연에 천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살았던 주인공이 보여주는 생태주의 사고는 오늘날 문명의 이기로 발생하는 결과들을 타개하는 혜안을 제공한다. 또한 안락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물질문명 위주에서 탈피하여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건강하고 활기찬 생태사회를 영원하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20세기 초기 캐더가 제시한 생태주의적 비전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며 조화로운 공생관계이다. 캐더는 이를 뛰어난게 그녀의 문학 세계 속에 재현해 놓았다. 캐더의 또 다른 작품 『길 잃은 여인』(*A Lost Lady*)에서도 미국역사의 일부로서의 서부 개척주의와 신화로서의 개척주의의 충동이 보다 긍정적인 변증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듯이(황재광 199) 『나의 안토니아』에서도 그녀의 긍정적인 생태주의적 비전은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므로 사람들의 삶은 자연과 균형을 도모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생명의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공존 가치의 내면화를 독자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용 문헌

- Cather, Willa. *My Antonia*. Trans. Jeon, Kyunh-ja, Seoul; Open Books. 2014.
[캐더, 윌라. 『나의 안토니아』 전경자 역 서울: 열린 책들, 2014.]
- Cather, Willa. *My Antonia*, Lexington, KY ; Millennium Publications, 2015,
_____. *On Writing: Critical Studies On Writing as an Art*. New York: Knopf, 1949.
- Glotfelty, Cheryl. "A Guide Tour of Eco criticism, with Excursions to Catherland" *Willa Cather's Ecological Imagination. Cather Studies*. Ed Susan J Rosowski, Lincoln: U of Nebraska P, 2003, 28-33.
- Hwang, Jae-kwang. "Willa Cather's Impulses to De-Mystify the Frontier Myth in *A Lost Lady*."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 Literature* 55 (2013):179-202.
 [황재광. 「윌라 캐더의 개척신화에 대한 탈신화적 충동—『길 잃은 여인』을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55 (2013): 179-202.]
- Kim, Gyung-hyun. “An Ecological Awareness and Criticism of Civilization on D, H Lawrence’s Novels.”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4 (2013): 1-24.
 [김경현. 「로렌스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인식과 문명비판」. 『신영어영문학』 54 (2013): 1-24.]
- Kim, Hae-ok. *The Theory of Ecological Literature*. Seoul: Saemi, 2005.
 [김해옥. 『생태문학론』 서울: 새미. 2005.]
- Kim, Wook-dong. *From Red to Green*. Seoul: Goldegg, 2011.
 [김옥동. 『적색에서 녹색으로』 서울: 황금알, 2011.]
- Kong, Myung-su. “The Land and the Bodily Self in My Antonia.” *Mark Twain Review* 19.1 (2012): 5-24
 [공명수. 「『나의 안토니아』에 나타난 대지와 몸의 자아」. 『마크 트웨인 리뷰』 19.1 (2012): 5-24.]
- Lee, Jun-young. “Nature and Labor in My Antonia and Eco criticism: The Limits of Pastoral Nature and the Potential of Intrinsic Labor.” *Mark Twain Review* 19.1 (2012): 67-88.
 [이준영. 「『나의 안토니아』의 자연과 노동 그리고 생태비평: 목가적 자연의 한계와 본질적 노동의 가능성」. 『마크 트웨인 리뷰』 19.1 (2012): 67-88.]
- Love, Glen A. “Nature and Human Nature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s on Catur’s Blue Mesa.” *Willa Cather’s Ecological Imagination. Cather Studies*. Ed Susan J Rosowski, Lincoln: U of Nebraska P, 2003, 1-27.
- Miller, James E. Jr. “My Antonia (Willa Cather).” *The American Dream*. Ed. Blake Hobby. New York; Bloom’s Literary Criticism, 2009. 141-52.
- Murphy, Patrick D. *Literature, Nature and Other: Ecofeminist Critiques*. Albany: State U of New York P, 1995.
- Park, Kyung-sook. “Willa Cather’s Ecological Vision in O Pioneers.” *English* 21 18.1 (2005): 71-86.
 [박경숙. 「윌라 캐더의 생태학적 비전—『오 개척자들』을 중심으로. 『21세기영어영문학회』 18.1 (2005): 71-86]
- Rosowski, Susan J. “Willa Cather’s Ecology of Place.” *Western American Literature* 30 (2000): 37-51.

_____. *The Voyage Perilous: Willa Cather's Romanticism*. Lincoln: U of Nebraska P, 1986.

Thoreau, David H. *Walden*. trans. Kang, Seung-yeong, Seoul; Ireh, 2010.
[소로우, 데이비드. 『월든』 강승영 옮김, 서울: 이레, 2010.]

hhlen@hanmail.net

논문접수일: 2017. 6. 30 / 수정완료일: 2017. 11. 15 / 게재확정일: 2017. 11. 20

